

빠른 판단력으로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한

## 미야모토 무사시, 나폴레옹, 이순신

주장환 |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인간의 성공과 행복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끈기와 집념, 성실과 근면, 정직과 선의, 박애와 창조, 시간관리와 끊임없는 자기계발 등... 다시 말해 스스로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만든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 중 일부는 국가나 제도의 힘을 빌려 행복과 성공을 보장 받으려 할 뿐 스스로 성취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난 4월호부터 이런 낡은 정신에서 벗어나 보다 고양된 자세를 통해 삶을 깊이 있게 다듬어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는다. (편집자주)

**| 변** 화무쌍한 시대에는 그 변화에 발맞춰 가는 사람이 성공하게 마련이다.

일본의 전설적인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적과 승부를 벌일 때마다 그에 맞는 전술 변화로 상대를 해치웠다. 그는 평소 적과 대결할 때 일부러 늦게 나타나 상대의 약을 올린다음 약점을 공략하곤 했다. 그러나 가문의 복수를 위해 마타시치로가 도전해 왔을 때 그는 오히려 일찍 도착해 숲 속에 미리 숨어 있는 적의 동향을 파악하고 번개같이 해치워버렸다. 사사키 코지로는 스스로 검술연구를 거듭하여 '간류'라는 새로운 검법을 창시한 인물이다. 무사시가 쌍검을 쓴다면 코지로는 모노호시자오(바지랑대)라고 불리는 석자길이의 장검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이 둘

은 결국 일생일대의 결투를 벌인다. 간류도에서 무사시와 코지로가 싸우기로 한 날이 되었다. 코지로는 시간에 맞춰 나타났지만 무사시는 보이지 않았다.

구경꾼들은 하품을 하고 있었다. 2시간이 지나서야 배가 한 척 나타났는데 무사시가 그 안에서 노를 짚고 있었다. 무사시는 머리에 더러운 수건을 매고 배에서 뛰어내리며 머리 위로 긴 노를 휘둘렀다. 분노한 코지로가 비난했다.

“8시에 온다더니 두려운가? 이제사 나타나다니!”  
그러면서 칼집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그걸 본 무사시가 웃으며 약을 올렸다.

“하하, 너는 졌다. 칼집은 무사의 생명이야. 너는 생명을 내던진게야”

나폴레옹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한 것이다. 나폴레옹은 기존의 군사교리를 멀리하고 적시적소에 필요한 부대를 계산, 부대 이동을 신속히 했다. 이 같이 정확하게 병력을 집중시키는 기동력은 비행기가 등장하기 이전인 제 1차 세계 대전 때까지 기본적 전술로 사용됐는데, 이 전술을 처음으로 실전에 적용시킨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다.

코지로가 울격하여 말했다.

“웃기지마”

상대가 약이 올라 이성을 잃은 사이 무사시는 선공하여 긴 노를 코지로의 머리를 향해 겨누었다. 코지로는 무사시의 머리를 향해 가격했는데 머리에 묶은 수건만 갈라졌다. 이때 무사시가 긴 노로 코지로의 발을 후려쳤다. 그리곤 쓰러진 코지로의 머리를 강타해 버렸다.

후세 사람들이 만든 ‘무사시 적 공략법’은 다음과 같다.

1. 멈칫거리면 먼저 죽는다 2. 몸을 사리지 마라 3. 유연한 자세로 임해라 4. 같은 방법을 3차례 이상 사용하지 마라 5. 공격의 리듬을 타라 6. 바위 같은 굳은 마음을 가져라 7. 상대의 마음을 읽어라

일을 도모할 때는 과거에 무엇이 일을 잘못 만들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 내부에서 판단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폴레옹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한 것이다. 나폴레옹을 만난 피테가 “이 사람이야말로 인간이다”라고 말했다면 보통사람인 우리는 인정해 주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나폴레옹의 오른팔 중 하나였던 탈레랑은 “나폴레옹은 정말 흔치 않은 천재다. 정력이 넘치고 상상력이 가득하며 실천력에 있어서는 천재였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나폴레옹이 특히 인정받는 면은 전쟁 수행 능력이다. 그는 ‘6일 동안 6전승’이라는 말을 남겨 놓았는데 첫 번째 전투인 이탈리아 원정 때 약 4만 명의 군

사로 두 배나 되는 8만 명의 적군을 격파했다. 이때 나폴레옹은 기존의 군사교리를 멀리하고 적시적소에 필요한 부대를 계산, 부대 이동을 신속히 했다. 이 같이 정확하게 병력을 집중시키는 기동력은 비행기가 등장하기 이전인 제 1차 세계 대전 때까지 기본적 전술로 사용됐는데, 이 전술을 처음으로 실전에 적용시킨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다. 그는 용병의 대가로 불렸다. 나폴레옹은 모든 전쟁에서 포병을 앞에 세우고 속전속결로 나갔다. 병력수보다 오히려 화포의 수량이 군사력의 척도가 된 것이다. 당시의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유럽 나라들이 재래식 전법에 매달려 있을 때 나폴레옹은 병사 개개인이 스스로 보급물자를 배낭에 지고 가도록 하여 기동성을 확보, 구식 사선(斜線)전투대형으로 덤벼드는 적을 섬멸했던 것이다.

칭기스칸도 마찬가지다. 말을 타고 속도가 느린 상대 진영을 비집고 들어가 단번에 목을 따버리는 전법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일본인들은 조선의 북방 기마 전술 앞에 무력했다. 그러나 조총으로 전술까지 개발한 왜군에게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임진왜란 전 일본을 통일한 오다노부나가 만든 ‘삼단철포사격법’은 그야말로 공포였다. 그는 이 사격법으로 일본을 통일하고 한반도를 짓밟은 것이다. 기존의 사격법은 1열로 그냥 쏘는 것이었다. 바로바로 쏘기 때문에 시차가 없었다. 그러나 조총은 재 장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총알을 장전하는 동안 기병대가 달려오면 움푹달짝 못한다. 그래서 1열, 2열, 3열로 사격을 나뉘어 앞에 있는 1열이 사격을 하면 2, 3열은 사

적과 나를 정확히 파악하는 판단력, 그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을 짚어내는 선별력, 그곳에서 아군을 지휘하는 카리스마. 이러한 점들이 이순신을 명장으로 남게 한 것이다. 베토벤이나 피카소는 안주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청색 시대'와 '큐비즘의 시대'에 이어 초현실주의에 이르는 동안 피카소는 지치지 않고 반복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향해 달려 나갔다.

격 준비를 한다. 1열, 2열 줄이 번갈아가면서 순서대로 쏘는 것이다. 조선의 기마병은 일본군의 삼단철포 사격법에 무차별적으로 살육 당했다. 이 역시 본질을 빨리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결과다.

임진왜란 초기 이순신 장군은 전투명령에도 불구하고 1주일 이상 출전하지 않았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바로 적군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첩자를 운용, 적의 배 안택선에 대해 잘 알아 보았다. 안택선은 한 층으로 되어 있고 몸체도 매우 컸으며 돛대도 하나였다. 그래서 조선 수군 주력배인 판옥선보다 매우 느렸다. 판옥선은 판자와 판자의 연결을 나무못으로 해서 나무못이 물로 인해 팽창되어 결합력을 크게 한 반면, 안택선은 쇠못을 이용했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판옥선보다 견고하지 못했다. 판옥선은 돛대와 키가 두개였기에 방향전환과 속력이 안택선 보다 빨랐다. 이런 장단점을 파악한 이순신 장군은 적과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적절한 방법을 운용, 대처해 나갔다. 빠른 배 몇 척으로 왜선을 유인한 다음 사방에서 포위하고 거북선을 내세워 적진 안으로 들어가 배를 부숴버렸다. 일본의 안택선은 돛도 하나고 대포를 배치할 곳이 없었으나 우리 판옥선은 돛이 2개인데다 대포 배치할 곳이 남아돌았다. 한산 대첩에서는 기동력이 느린 안택선은 해류가 심해서 배가 부딪히며 빠져 나가지 못했다. 학익진을 사용하여 적을 꼼짝 못하게 한 것이다.

적과 나를 정확히 파악하는 판단력, 그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을 짚어내는 선별력, 그곳에서

아군을 지휘하는 카리스마. 이러한 점들이 그를 명장으로 남게 한 것이다.

베토벤은 음악적인 규칙 같은 것을 따지지 않았다. 그는 형식보다 실질을 숭상 했다. 더욱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규칙이든 어겨도 상관없다고 확신했다. 피카소나 모네, 고흐 등 일세를 풍미한 작가들이 기존 모습에서 벗어난 새 기법을 가져와 우리를 감동시킨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형식에 매이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법이다. 베토벤이나 피카소는 안주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청색 시대'와 '큐비즘의 시대'에 이어 초현실주의에 이르는 동안 피카소는 지치지 않고 반복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향해 달려 나갔다.

물 흐르듯 유연하고 시대변화에 적응하라. 물고기를 보라. 수 억년 진화해오면서 물 흐름에 맞춰 유연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의 이미지, 그리고 행동이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말과 행동, 경험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야만 한다. 정신병은 항상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나 오기를 바라는 것이라지 않는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법'이다.

당신이 다른 뭔가를 원한다면 다른 뭔가를 행해야만 한다. 만약 당신이 담배를 수십년 간 피워 왔다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술을 마셨다면 간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소금 먹고 물 킌다'

물 흐르듯 유연하고 시대변화에 적응하라. 물고기를 보라. 수 억년 진화해오면서 물 흐름에 맞춰 유연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의 이미지, 그리고 행동이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말과 행동, 경험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야만 한다. 지금 당장 당신의 태도를 변화시켜라. 그러기로 마음먹는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삶은 성공과 행복을 위해 한걸음 성큼 나아가게 될 것이다.

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벌써 30년이 지난 일이다. 당시 난 고등학생이었는데 친구 중 멋지게 생긴 성문이란 친구가 있었다. 공부도 잘하고 축구 또한 뛰어나게 잘해 그 지역 명문인 계성고등학교에서도 알아주는 명물이었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던 이 친구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약간의 반항기가 그것이었다. 사춘기 시절 반항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었지만 이 친구는 유별났다. 교통질서나 공중도덕을 일부러 지키지 않는 것이었다. 난 그게 늘 조마조마했다. 횡단보도나 육교로 건너지 않고 가로지르기 예사였으며 종이나 껌 등을 학교 강당이나 복도 등에 툭 뺏어버리곤 했다. 난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지만 그는 오히려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군에 입대하게 됐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성문이가 교통사고로 인사불성이 되어 경북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외출조차 허락되지 않는 최전선 포병부대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기 전까지 살아있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사단에서 경연

대회를 열어 거기서 1등해 포상 휴가를 나오게 됐다. 난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다. 성문이 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두 형제를 키운 사람이다. 나를 보더니 대성통곡을 하셨다. 아들 친구니 오죽했겠는가? 쏟아지는 눈물과 비통함 속에 휴가 1주일을 보내면서 난 성문의 죽음 원인이 그의 나쁜 버릇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날도 예외 없이 학교 앞 육교 밑을 무단횡단 하다가 달려온 택시에 치이고 만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만약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당장 그만두라. 혹 차를 몰 때 제한속도보다 더 빨리 달린다는지 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성문을 친 그 차 역시 제한속도를 넘어서 질주하고 있었던 것이며 두 사람의 버릇이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런 불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당장 당신의 태도를 변화시켜라. 그러기로 마음먹는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삶은 성공과 행복을 위해 한걸음 성큼 나아가게 될 것이다. ●

## 주장환

님은 서울신문사(스포츠서울), 세계일보를 거쳐 파이낸셜뉴스 문화부장, 국제부장, 유통부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언론연구원, 캠브리지대학을 연수하였으며 충효예실천운동본부전문위원, 한국바디워크프로페셔널협회고문, 언노련민주언론실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대학원평생교육원, 삼성, GS문화원 등에서 「신문을 통한 우리 경제 엿보기」, 「문학의 이해-소설과 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하는 NIE / 논술여행」 등

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논리강의』, 『논술이라고?, 너 딱걸렸어』, 『노벨문학상 소프트 1,2』, 『과학피즐』 (문화체육부 선정 추천도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식논술陣법 NIE』, 『로즈여사에게 배우는 특별한 자녀양육법 26』 등과 장편소설 『그 바닷가 헛간은 따스했다』, 『사바카』, 『겨울새 물살털기』, 시집 『내 마음 속에 사랑의 집 한 채』, 번역서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라』, 『오사마빈라덴』, 『사랑을 주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등이 있습니다.